



지방에서 새로운 안전관리 체제를 만들어 가는 현장

-(주)세중참사랑아파트 현장-



▲ 김 동 식 소장

동 장군의 심술로 겨울의 맛을 톡톡히 봐야 했던 몇일전과 달리 한풀수
그러진 날씨에 햇볕은 따사롭기까지하다.

옷속으로 쓰며드는 겨울 햇살의 안내를 받으며 찾아간 곳은 충절의 고향,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충주이다.

충주에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안전한 시공을 하는 곳이 있어 찾은
곳은 (주)세중참사랑아파트 현장이다.

「건설분야의 안전은 회사, 현장직원, 본사,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관리기
관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서로 믿고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해야 하나
현재의 안전관리 활동 상황은 그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관리의 정도가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의식은 수도권 현장근로자
와 지방 현장근로자의 의식수준을 5년이상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라고 지방에서의 안전한 시공을 하는데 있어 몇배 더 힘들다는 것을 김동식
소장은 이야기 한다.

그래서 이 현장은 지방업체이지만 안전관리에서는 1군업체의 안전관리
체제를 추구한다.



안전의식 고취가 급선무

처음이 현장을 착공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작업할 때 현장에서 안전모 하나 쓰게 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다고 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여기고, 안전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어 관리 하였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실시하는 것은 “안전교육”으로 아침조회때 팀장으로부터 그날 공중의 위험요소와 안전수칙을 주지시키는 5분미팅과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달라졌다고 한다.

위험공중은 철저히 대응

(주)세중참사랑아파트 현장에서 위험 공중으로 기계실, 저수조 타설공사시 높이 6m이상의 거푸집 지보공 조립시 Support를 사용한 골조공사시 추락, 붕괴 등 재래형 재해의 발생 위험이 많아 항상 긴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추락재해를 받코니 달비계 설치 전에 생명줄을 설치하여 외부작업자의 안전대 착용을 유도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받코니 달비계는 4개종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낙하재해는 낙하방지망 설치를 기본적으로 모든 개구부에 설치하고, 근로자 통행로는 작업 통로를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거푸집 지보공 설치시 3단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무엇보다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를 준수하며 안전시공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협력업체 관리 철저

현장 곳곳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음을 정 부에서 발표되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세중참사랑 아파트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관리가 철저하다.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을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확답을 받은 후에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견적을 넣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불안전 행동이나 상태



를 방치한 사례가 안전환경팀에게 발견되면 사진촬영과 해당 협력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현장 근로자의 복지에 전액 사용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외 안전환경팀에서는 모든 실적을 분석하여 분기별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하고 있다.


맺으면서

강압적인 수직관계는 안전의식이 낮은 지방에서 반발감에 의한 역효과만 있지, 좋은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 그래서 모든 안전작업지시는 작업반장 등과 방법에서 조치 결과까지 함께 도출해냄으로써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현장 작업이 끝나면서 무사히 퇴근하는 작업자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이 고맙다”라는 안전관리자의 말에서 정겨움이 느껴진다.

이 현장에서는 이처럼 애착을 갖고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금년 김동식 소장의 바램인 준공그날까지 무재해 준공이 벌써 눈에 보이는 듯하다.

끝으로 개인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및 기술자료 습득 등 기본 지식을 보충하여 현장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지식을 한단계 올려 놓은 재미년이 되길 바란다. 

〈최종덕 기자〉

